

한국형 출혈열 이환 후 발생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2례 보고

영남의대 내과

강찬규 · 최정규 · 윤경우
최수봉 · 김종철

한국형 출혈열은 발열, 출혈성 경향, 저혈압, 핏뇨 및 이노의 임상경과 후 대부분 후유증없이 회복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한국형 출혈열의 부검시 뇌하수체 전엽의 피사는 특징적인 소견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한국형 출혈열 이환후 생존한 환자에서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이 초래된 임상례의 보고는 매우 드물었다. 연자들은 최근 30세 남자 및 58세 남자 환자에서 한국형 출혈열 이환후 발생한 뇌하수체기능 저하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환자는 30세 남자 환자로 입원 2년 전부터 시작된 성욕감퇴를 주소로 입원한 환자로 입원 2년 6개월 전 일주일 간의 고열과 배부 동통을 주소로 본 병원에 입원하여 유행성출혈열의 진단하에 혈액투석 및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한 사실이 있었다. 재입원 당시 교환 크기

의 감소와 치모 및 액와모의 소실이 있었고, 한국형 출혈열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었다. 뇌하수체 기능에 대한 복합 자극 검사에서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의 소견을 보였고 시야검사, 두개골 X선 및 뇌전산화 단층촬영은 정상이었다.

2) 환자는 58세 남자 환자로 입원 2일 전부터 발생한 식욕부진과 입원당일 발생한 의식의 혼미를 주소로 입원하였다. 12년전 한국형 출혈열을 앓은 과거력이 있었고 평소 성욕감퇴 및 저혈압이 있었다. 입원당시 혈압은 50/30 mmHg였으며, 검사실 소견으로는 Na 123 mEq/L, K 3.1 mEq/L, Cl 97 mEq/L, 혈당은 34 mg/100 ml였으며, 한국형 출혈열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었다. 임상적으로 부신피질 기능저하증이 의심되어 뇌하수체 기능에 대한 복합 자극 검사를 시행한 결과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소견을 보였고 시야검사, 두개골 X선 및 뇌전산화 단층촬영은 정상이었다.

상기 2환자에서 뇌중양 및 전이성 암등의 증거가 없었으며 과거력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원인이 될만한 질환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한국형 출혈열 이환 후 야기된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현재 첫번째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및 남성 호르몬의 보충요법, 2번째 환자는 갑

Table 1. Combined Anterior Pituitary Function Test

Case 1

	기저치(정상치)	자극후 최고치	자극후 정상 최고 반응
TSH(μ IU/ml)	2.30(0~6.5)	4.90	Increase of 5 μ IU at least
Prolactin(ng/ml)	9.11(7~18)	11.62	3 \times basal
GH(ng/ml)	1.21(0~8)	1.26	2 \times basal and increase of 8 ng at least
Cortisol(μ g/dl)	2.17(7~21)	3.58	20 μ g/dl and increase of 7 μ g at least
LH(mIU/ml)	3.03(4~20)	4.16	4 \times basal
FSH(mIU/ml)	0.05(4~20)	1.57	1.5-2 \times basal

Case 2

	기저치	자극후 최고치
TSH	2.40	4.80
Prolactin	2.48	4.06
GH	1.06	1.27
Cortisol	0.14	0.40
LH	3.63	6.69
FSH	2.62	4.00

상선 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보충요법을 시행중
에 있다.

— 10 —

한국형 출혈열 환자에서 동반된 간기능 장애가 그 예후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대 내과

구철희 · 이은경 · 주현영
하성규 · 이호영 · 한대석

한국형 출혈열은 1976년 병원체가 분리되고, 혈청학
적인 진단방법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져, 그에 의
한 사망률은 감소되었으나 병의 정확한 기전이나 예후
에 관계되는 인자들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81년 5월부터 1985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내과에 입원
하여 한국형 출혈열로 진단된 69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 남녀비는 4.1 : 1이었고, 평균 연령은 46세였다.
- 2) 사망률은 총환자 69명중 6명으로 8.7%였으며 사
망까지의 평균 입원기간은 4.5일이었다.
- 3) 입원당시 SGPT가 100 IU/L 이상 상승되었던 환
자는, 생존군에서 58명중 5명으로 8.6%, 사망군에서
6명중 2명으로 33.3%이었으며 평균 SGPT치는 각각
46.7 IU/L와 461.5 IU/L이었다.
- 4) 입원당시 SGOT치가 100 IU/L 이상이었던 환자
는 생존군에서 59명중 13명으로 22.0%, 사망군에서 6
명중 5명으로 83.3%이었으며 평균 SGOT치도 생존군
이 77.7 IU/L, 사망군이 868.7 IU/L로 SGPT보다
SGOT가 상승된 빈도가 생존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사망군에서 높았다($P < 0.01$).
- 5) Prothrombin time이 70%이하로 저하된 환자수
는 생존군에서 60명중 2명뿐이었던 반면, 사망군에서
6명중 3명이었다.
- 6) 입원당시 말초혈액 혈소판수는 사망군에서 모두
50,000/mm³이하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인 반면,
생존군에서는 30,000/mm³이하에서부터 150,000/mm³
이상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으나 50,000/mm³이하
이었던 환자는 48.3%였다.
- 7) 혈청 Albumin이 2.5 g/dl 이하였던 환자는 생존
군에서 16.7%, 사망군에서 66.7%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 8) 입원중 저혈압기가 2일이상이었던 환자는 생존군

에서 60명중 1명으로 1.7%, 사망군에서 6명중 4명으
로 66.7%이었다.

9) 입원기간 중 측정된 BUN 및 혈중 Creatinine의
최고치는, 생존군에서 각각 112.3±49.1 mg/dl와
9.9±5.0 mg/dl, 사망군에서 각각 85.1±26.6 mg/dl
와 6.2±5.0 mg/dl로써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형 출혈열 환자에서는
간기능의 장애가 심하게 동반될 수록 예후가 불량하였
으며, 특히 내원당시 환자의 예후를 판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SGPT치의 상승보다는 SGOT치의 상승이
보다 더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 11 —

韓國型 出血熱에서 腎間質 浸潤 淋巴球의 特性

서울醫大 內科

安圭里 · 李根厚 · 韓鎮錫
金聖權 · 李正相 · 李文鎭

病理科

金 勇 一

臨床病理科

趙 漢 翊

細胞浸潤은 韓國型 出血熱의 3大 顯微鏡 所見의 하나
로 주요 浸犯臟器는 心筋, 胃腸管, 肝 및 腎등이다.

腎組織內的 細胞浸潤은 生檢例의 약 90%에서 관찰
되고, 底血壓期에 髓質部에 나타나서 진행하는데, 이
때의 浸潤細胞는 單核球인 淋巴球로 알려져 있으나, 이
들 淋巴球의 구성이나 기능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演者들은 이들의 性狀을 알아보기 위하여 血清學的
方法으로 확진된 韓國型 出血熱 患者 2例의 腎生檢組織
에서 淋巴球의 鑑別을 시도하였다.

患者 1例(症例 1)는 發病후 6日, 乏尿期에, 1例(症
例 2)는 發病후 15日, 利尿期에 腎生檢을 하였고, 組
織은 dry-ice와 acetone으로 냉동시킨 후 -70°C에
보관하였다가 2~4μ 두께의 냉동절편을 만들고 APA-
AP(alkaline phosphatase-anti-alkaline phosphatase)
法을 利用하여 T₄, T₈ 및 B淋巴球를 染色하였다.
抗-T₄, 抗-T₈抗體는 DAKO社의, 抗-B抗體는
OKIa₁(LBD₉-2)의 monoclonal抗體를 사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15高倍率視野당 각 陽性細胞數를 측정한 合
을 求하였다.